

마음에 숨겨진 대량 살상무기 중요

과학적으로 증오심 분석... 예방법 모색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건물, 왜 테러리스트의 눈에는 그날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오로지 적으로만 보였을까. 또 1998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열다섯 살의 킨켈은 왜 친구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증오심이다. 그래서 이 책의 지은이 도지어 주니어는 증오를 '인간 마음 속에 숨어있는 대량살상무기'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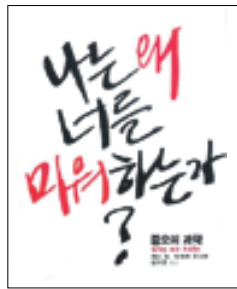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인간의 증오심에서 비롯된다.

증오심이란 무엇인가? 증오의 과학은 증오심이라는 인간 특유의 감정 속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증오심이 발생하는 인간 감정의 메커니즘을 생물학적·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증오심을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은이에 따르면 증오가 폭발하면 예절과 인내는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은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집단 간에는 끔찍한 전투가 벌어진다고 강조한다.

증오란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동정과 연민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포용력은 차단되며, 희생양으로 삼은 상대방의 인간성까지도 말살시켜 버리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해부학·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증오는 '뇌의 원초신경계와 고등신경계 사이의 갈등'이라는 지은이의 설명이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외부자극과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원초신경계와, 논리적 이성과 사색을 관장하는 고등신경계가 신경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감정과 이성을 혼동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번식 본능과 연결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낭만적인 사람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야수적인 적대감과 증오를 종교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러시W. 도지어 주니어 | 김지연 옮김
사이언스 북스 펴냄 | 1만8천원



이라크 전쟁에서 다친 이라크인들.

증오심 예방 · 제거 10가지 전략

- 증오의 감정을 구체화 한다. 즉 화, 고통 또는 두려움의 원인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 타인과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발전시킨다.
- 화와 두려움의 원인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 갈등과 화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도한다.
- 자신과 타인을 계도한다.
- 가능할 때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한다.
- 과민반응을 하기보다는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 억압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증오의 원인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몰두하는 기회를 모색한다.
- 복수가 아닌 정의의 구현다.



적, 이데올로기적인 열정으로 포장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지은이는 증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증오의 원인이 되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그렇게 하면 뇌 속 이성을 다루는 부위에서 이를 맡아 비이성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증오심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동물실험 결과, 이 편도체를 제거하면 증오나 분노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감정신호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거나 전달하지 못해 정상적 상호작용 능력도 없어진다. 결국, 증오나 분노심만을 제거할 수 없기에 증오심을 끌어안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인과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학 심리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논픽션 저서들을 선보여온 지은이는 증오심을 예방하고 제어할 10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가능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타인과 협력하라' '화와 두려움의 원인을 타인과 이야기 하라' 등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지은이가 내세운 증오 예방책을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원론적인 '모범답안'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책은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도 증오를 고찰하고 있다.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콜럼비아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인종차별 범죄, 자살에 이르기까지 증오의 다양한 사회적 표현 형태를 분석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한국영어를 고발한다
최용식 지음
넥서스 발행/9천8백원

한국의 관공서와 기업에는 콩글리시가 범람한다.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기사를 거쳐 세종대 강사로 활동중인 최용식씨가 <한국영어를 고발한다>란 책을 냈다. 그는 서울시의 '하이 서울'이나 삼성전자의 '디지털 의사이팅',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브 유어 웨이', 농협이 '휴먼뱅크' 등 행정기관과 대기업이 떠들어 대고 있는 슬로건의 대부분이 잘못된 영어, 소위 콩글리시라고 공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채택한 '하이 서울'의 경우 슬로건의 주체인 서울이 스스로에게 '인녕 서울'이라고 인사하는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지은이는 "현대 마케팅 원칙에서 슬로건은 주체가 되는 국가·도시·단체·개인·기업의 가치나 비전, 역사,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며 "서울의 슬로건은 '우리가 이렇다'고 선언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효자상품 휴대폰 '애니콜'의 광고문구 '디지털 의사이팅'도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 없는 형용사를 연결해 놓았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말이 되려면 '디지털 앤드 의사이팅', '디지털 의사이팅' 혹은 '디지털 의사이팅먼트' 라야 한

콩글리시 마케팅의 천국 코리아

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부분에서 1997년 예경의 '책시 마일드' 삼푸모델로 나왔다가 나중에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이상한 삼푸광고를 찍었다'고 말해 국내 팬들의 반감을 산 미국 영화배우 맥 라이언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똑같이 형용사의 나열이라는 것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브 유어 웨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부정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매장에서 새로 산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고객에게 '드라이브 유어 웨이'라고 말한다면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슬로건 '완벽을 추구하는 데는 끝이 없다' (The pursuit for perfection has no finish line), 크라이슬러의 '영감이 기준이 된다' (Inspiration comes standard) 등의 슬로건을 잘된 사례로 들었다.

'농협'의 '휴먼뱅크'는 인간적 은행이 아니라 장기은행이 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원래 의도대로 인간적 은행이 되려면 휴먼에 e를 하나 더 붙인 휴메인(humane)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쪽에서는 "슬로건이나 광고문구가 반드시 문법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멀쩡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한국영어를 고발한다>는 우리가 당연히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나 기업의 영어 표현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해 전국에 팽배해 있는 영어 열풍과는 상관없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문 제투성이의 영어 학습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일깨워준다.

지은이는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영어표현의 오류를 치밀한 설명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고 한국의 영어 문화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창환 (문학고 영어교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노닐면서 직접 만드신... **산寺 조청**

-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寺 조청은 산천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寺 조청은 한자의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이사님의 지문을 받습니다.
- ❖ 산寺 조청은 비구수 스님들의 청정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산寺 참옥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종풍과 약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寺 기침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寺 조청원**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귀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험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서 부처님 법과는 심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회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변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우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리학회 신사상역사 / 지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한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법범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바로보인 선문영송 (30권 중 6권까지)
새월을 폭재로 세상을 폭삼아
앞뜰에 국화꽃 끊고 북산이 찾는 회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뇌졸중!
민간요법으로 대비하세요.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폴시노 요법으로 예방하십시오. 일본의 유수 가치고시마현 지방에서 유래되어 게이쇼엔 알로리 노인들이 실험하고 비방을 증언하여 일본 국민학교 교장 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민간요법으로 이미 수만 명이 실험하였고, 유용한 분 들은 아직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소개되어 10여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여러 경로로 소개된 방법의 민간 식품입니다. 국내에도 각종 경로로 전파된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이미 유용한 경험자도 있는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요법이니 본 요법을 평생 수행하면 반복 음용한다면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접해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폴시노 음용자로 등록하여 회원이 되시면 뇌졸중 발생시 보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가입 금액의 300% 보상지원 : 단, 5년간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 허가 신고번호 : 인전 제3-3-4호, 구로 제20 142호
● 품명 : 폴시노 / ● 주원료 : 매실, 머위, 기타, 혼합물

클라켄 체감속도 **취급점 모집**

오성생활건강 사업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4-3호 하은빌딩 202호
전화 02)542-5214, 010-6347-6200
농협 100015-51-030669 (예금주: 서영숙)
국민은행 059402-04-034722 (예금주: 서영숙)